의안 번호	78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활용 촉구 결의안

(장병운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
(장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의 원 : 장병운 김우진 남재욱 남호준 배명갑
박강우 박연정 이무식 지상록 전홍표
진형익 하경석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1997년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가 신항 건설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인해 황금같은 바다를 다 내어주고 생계 터전을 잃은 소멸 어업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음

❍ 특히 웅동1지구 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는 장기간 지속된 민원을 해결하고 소멸어업인의 실질적 생계대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토지임

❍ 창원시는 신항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요구에 따라 웅동1지구 일부토지를 생계대책 조합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생계대책 조합에 매도하였음

❍ 그러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생계대책부지 역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지연되고, 각종 세금과 조합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이자 비용 등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창원시의회는 생계 대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부지의 현실적인 용도변경과 적극적인 개발·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고자 함

❍ 이에 계획된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땅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계와 조합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함.

2. 주요 내용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의 조속한 용도변경 추진

- 현재의 토지 이용계획과 실제 지역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멸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수익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소멸어업인의 권리와 현실적 대책보장

- 부지 활용 과정에서 소멸어업인의 기존 권리와 생계대책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하고 향후 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소멸어업인 조합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문

창원시의회는 부산항 신항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엄숙히 인식한다.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인해 생업을 잃어버린 권리와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생계 대책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화와 사업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해당부지의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이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변화된 산업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소멸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창원시는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주체로 나서라.

하나. 창원시는 관계기관의 개발계획 변경・수립 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때까지의 공백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는 물류단지 조성 및 장기임대 사업 등 추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 또는 용역을 실시해 소멸어업인들과 창원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